

#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9월 22일(금) 09:30

장 소 :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실

출석위원 : 백용규, 박형민, 주상현, 문순자, 김종성, 송연순  
(출석위원-6명)

---

(09시29분 개의)

## ○ 위원장 ○○○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부터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 ○ 간사 ○○○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 위원장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1건입니다.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로부터 출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공무국외 출장 심사기준은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국은 일본 오사카입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으로, 일본 오사카의 우수한 선진시설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선진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정책 개발 능력 및 의정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국외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리어 프리 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일본 오사카시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와 시의회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의원은 김승일 의원 1명이며, 출장경비는 176만원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공무원여비 규정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p 출장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23일, 인천공항에서 14시경 출국하여 16시경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입국 예정입니다. 호텔 체크인 후, 저녁 시간에는 신세카이 혼도리 상점가를 돌며 오사카 현지 문화와 상업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틀차인 10월 24일, 김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사카사야마시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야마 시청에서는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분야의 배리어프리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현장연구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팅 후에는 시의회 의장님과의 환담 시간이 약 20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5일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창업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탐색한 뒤, 오후에는 일본 청년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도톤보리라는 청년 창작 공간을 방문하여 현지 청년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 관련 문화적 통찰력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4일차인 10월 26일에는, 오사카의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인 신텐노리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상징을 지닌 오사카 성을 방문하여, 독특한 상권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관광객 유치사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일차에는, 여장 정리를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경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하여 대략 13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전체 출장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래의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및 3p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지 이동수단은 전용택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의원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은 가급적 여유롭게 계획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간사로부터 안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김승일 의원님은 혼자 못 가시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분은 개별로 가나요?

○ **간사** ○○○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

1명이 가나요?

○ **간사** ○○○

예, 활동보조요원.

○ **위원** ○○○

1명은 개인적으로 해서 2명이 같이 가는 건가요?

○ **간사** ○○○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 부담하기 때문에,

○ **위원장** ○○○

오사카 사야마 시에 김제시하고 옛날에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아쉬운 건 일본말로 사야마이케 저수지 있잖아요. 김제시 벽골제와 유사한 곳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견식 시장님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 데

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야마 시에 가면은 김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수지가 있거든요. 가면 보고 배울 것이 많아요.

○ **간사** ○○○

이번 김승일 의원님이 일본 국외출장을 가는 목적은 배리어프리사업이라고 해서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 쪽으로 방향을 뒀기 때문에 생략된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렇지요. 그게 조금 아쉽지요.

○ **위원** ○○○

왜 꼭 오사카를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4박 5일을 전체적으로 오사카에서, 거기가 뭐가 원하는 그런,

○ **위원** ○○○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본, 개인들도 그렇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일본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의원님이 일본 간다고 만약에 이것이 나가면 무슨 소리에요. 지금 개인들도 일본 안 가는데 그렇게,

○ **위원** ○○○

지금 못 바꾸나요?

○ **위원장** ○○○

일정 잡혀 있지요? 계약하고 끝났지요?

○ **업무담당자** ○○○

전체 의원님이 가는 출장이 아니다 보니 연수업체 쪽에서는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해서 일정을 개별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지금 하기는,

○ **위원장** ○○○

비용은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일정이 언제 잡혀있지요?

○ **업무담당자** ○○○

10월 23일부터 4박 5일간 잡혀있습니다.

○ **간사** ○○○

이 계획은 오염수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세워져서 그 후에 했으면

출장국을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세워  
놔서,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국  
내연수 갈 때도 한 번도 참여를 못 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 **위원** ○○○

하여튼 가는 건 맞는 데 일본이니까 조금 그렇네요.

○ **위원** ○○○

우리도 오염수 그 얘기 나오고부터는 중국도 해산물 같은 것들 다  
수입금지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더 해야 하잖아요.

○ **위원** ○○○

그런데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인지 모르겠지만 하필 택한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 **위원** ○○○

취지는 좋은 걸 배워서 온다는 것이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본이  
라는 자체가, 의원님이 가신는 것이 참 조금, 말씀대로 오염수 터지기  
전에 잡혔던 것이라 그런다고는 하지만,

○ **위원** ○○○

일본도 있고 시기도 그래요. 부안도 연수 가려다가 취소됐거든요. 시  
기적으로 연수 시기가 아니거든요. 새만금 예산 때문에 난리예요.

○ **위원** ○○○

저희도 저희지만 출장지를 본인이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 **위원** ○○○

이거를 조금 하고 내년이나 가는 걸로 하면,

○ **위원** ○○○

이미 예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

그런데 통과하기 전에 예약하는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 **업무담당자** ○○○

출장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략적인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오늘 통과  
되면 확정을 짓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예정 중이다. 심사 끝나고 확행  
을 주겠다.

○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 있잖아요. 예약까지 다 해놓고 부결 되면 그 돈을 누가 책임집니까?

○ **업무담당자** ○○○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가예약만 잡아놔서 혹시라도 부결되더라도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

금액까지 나올 정도는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가계약이든 뭐든 간에,

○ **업무담당자** ○○○

여비 근거로 산출만 한 겁니다. 이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다.

○ **위원장** ○○○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 **간사** ○○○

이 금액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출장경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 **위원장** ○○○

가는 나라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 **간사** ○○○

일본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4박 5일 일본해서 경비산출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복무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은 그 이상으로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 **위원** ○○○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듣고 하는데,

○ **위원** ○○○

여비 규정으로만 할 수 밖에 없어요. 의정팀에서는. 여비 규정으로 적은 거니까 금액은 신경쓰지 마세요.

○ **위원** ○○○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놔서 듣기에는 배리어프리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심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것을 빼고, 아마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살기 좋

은 사회인데 아무래도 일본이 아무래도 고령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우려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나, 물론 저도 심의 올 때 하도 뉴스라든지 공무원들 최근에도 누가 일본 갔다 와서 욕 얻어 먹었던 것 뉴스에 나왔는데, 오염수 그건데 일본을 왜 갔다 오냐 반대하지 않냐 했는데,

그런데 한 분이고 하니까 그거를,

○ **위원** ○○○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요. 배리어프리사업만 참고하겠습니다. 이 일정에서 본다면,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희 직원이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그래서 회식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식당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다 올라가다가 마지막 계단이 있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이거 하나 생각하신다면 한 분이 가시는 건,

다른 나라보다 그쪽이 조금 더 잘되어있지 않을까 고령자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서 조용하면 모르는데 누가 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과해줬냐 그게 가장 걸리는데,

○ **위원** ○○○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 ○○○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한다고,

○ **위원** ○○○

연기나 예를 다른 나라는 없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김승일 의원을 위해서 수행한 직원들 있잖아요.

○ **위원** ○○○

보조요원.

○ **위원** ○○○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애쓰고 있는데 나라를 떠나서,

○ **간사** ○○○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가까운 나라, 유럽까지는 못 가고,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예산 내년에 갈 수 있지요?

○ **간사** ○○○

아니, 내년은 내년 예산으로 하고,

○ **위원** ○○○

올해 안에만 가면 되잖아요.

○ **간사** ○○○

글쎄요. 시기적으로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 **위원** ○○○

저희 들도 오염수 방류문제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 **위원** ○○○

아니 저 기권입니다.

○ **위원** ○○○

대만이나 싱가포르, 대만도 그렇게 멀지 않고 제가 찬성한 것은 고령자하고 이거를 배우려고 거기가서 하려고,

○ **위원** ○○○

배우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니까요.

○ **위원** ○○○

시기적으로 그리고 일본이라는,

○ **위원** ○○○

일본이 고령사회로는 가는 게 우리보다 먼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아무래도 약자에 대한 시설이나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  
하시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 **위원** ○○○

정치적인 문제만 떠나서 단순하게 그 사업을 보고,

○ **위원** ○○○

이분이 일반인이라면 또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 의원이잖아요.

○ **위원** ○○○

그런 게 좀 민감해서

○ **위원** ○○○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은 내야 하니까요.

○ **위원** ○○○

결론 나왔잖아요.

○ **위원** ○○○

저는 기권,

○ **위원** ○○○

저도 기권합니다.

○ **위원장** ○○○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찬성  
2표, 기권이 4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을 얻  
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